

최근 지역경제 상황

2014. 12. 9

BS금융경영연구소

(작성: 백충기)

[목 차]

■ 요약

■ 최근 지역경제 상황 진단 1

1. 생산..... 1
2. 소비..... 2
3. 고용..... 3
4. 수출..... 4
5. 부동산..... 5

■ 국제 원유가격 전망과 하락효과 6

【요약】

최근 지역경제 상황 진단

- 동남권 경제는 부동산시장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 생산 및 소비는 부진
 - 제조업 중에서 조선 및 자동차 생산이 감소
- 해외수요 전망이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는데다 부동산시장 호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 단기 전망도 긍정적이지 못함

국제 원유가격 전망과 하락효과

- 국제 원유가격은 지난 6월 하순 이후 40% 급락
 -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확대, OPEC 생산 증대,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 등에 기인
- 미국 에너지정보청(EIA)에 따르면 내년중 평균 원유가격은 금년대비 20%정도 하락 예상
- 원유가격이 20% 하락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은 1.5%p 정도 상승 전망
 - 다만,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및 채무부담이 큰 미국 셰일오일 탐사업체의 재무 불안요인으로 금융시장 불안정 가능성 제기

최근 지역경제 상황 진단

1. 생산 : 감소폭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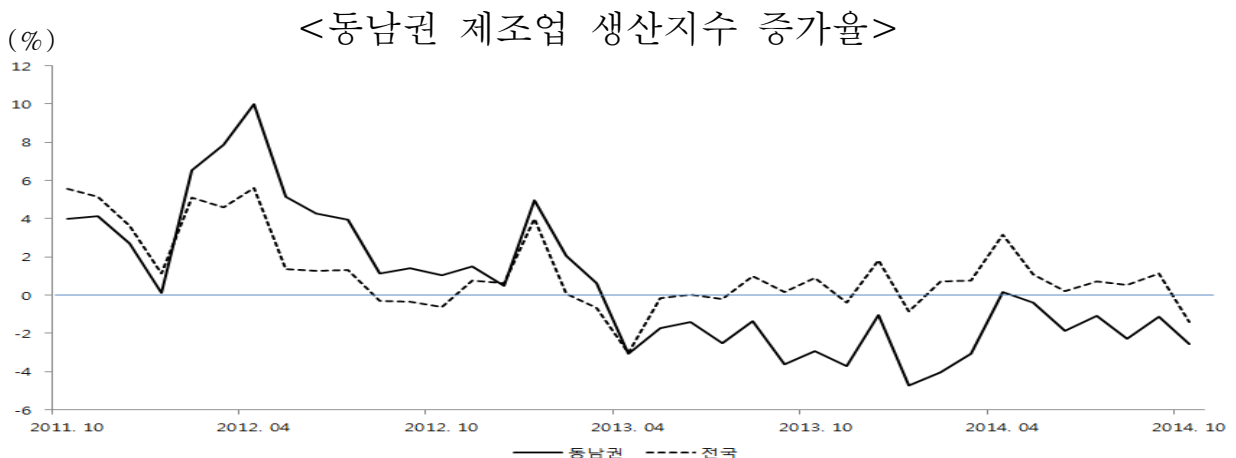
□ 최근 3개월(2014.8월~2014.10월) 동남권 제조업 생산은 감소폭 확대

※ 동남권 제조업생산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(%)

3개월 이동평균 지수: $\Delta 2.3$ (6~8월)→ $\Delta 1.1$ (7~9월)→ $\Delta 2.6$ (8~10월)

원지수: $\Delta 5.4$ (8월)→ 0.3 (9월)→ $\Delta 2.7$ (10월)

- 전국은 석유(6.8%), 철강(5.2%), 기계(3.4%) 등이 증가했으나 자동차(-8.3%), 조선(-8.2%)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
- 동남권은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었는데 기계(4.1%), 석유(3.4%), 철강(0.4%) 등이 증가했으나 조선(-14.9%), 자동차(-7.2%), 화학(-0.5%) 등은 감소
- 자동차는 내수부진과 완성차 수출감소로 마이너스 성장
- 철강은 미국 수출 확대로 증가했으며, 기계는 중국 및 미국으로의 공작기계 수출 호조로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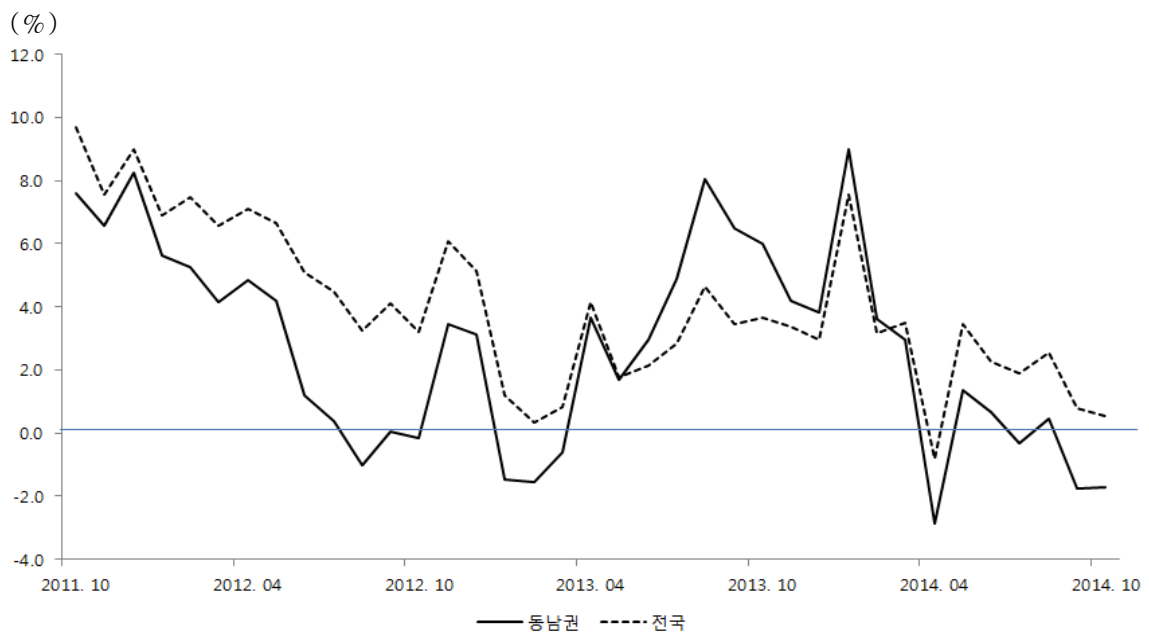
주: 전년동기대비 증가율, 3개월 이동평균

2. 소비 : 감소세 지속

□ 동남권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감소세 지속

- 동남권 백화점(-2.2%) 및 대형마트(-1.2%) 판매는 감소했으며 전국은 대형마트(2.0%) 판매가 증가했으나 백화점(-1.6%) 판매는 감소
- 상품별로는 신발가방, 화장품 등이 증가했으나 오락·취미·경기용품, 의복 등이 감소
- 지역별로는 부산(-1.3%), 울산(-2.9%) 및 경남(-1.8%) 모두 감소

<동남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가율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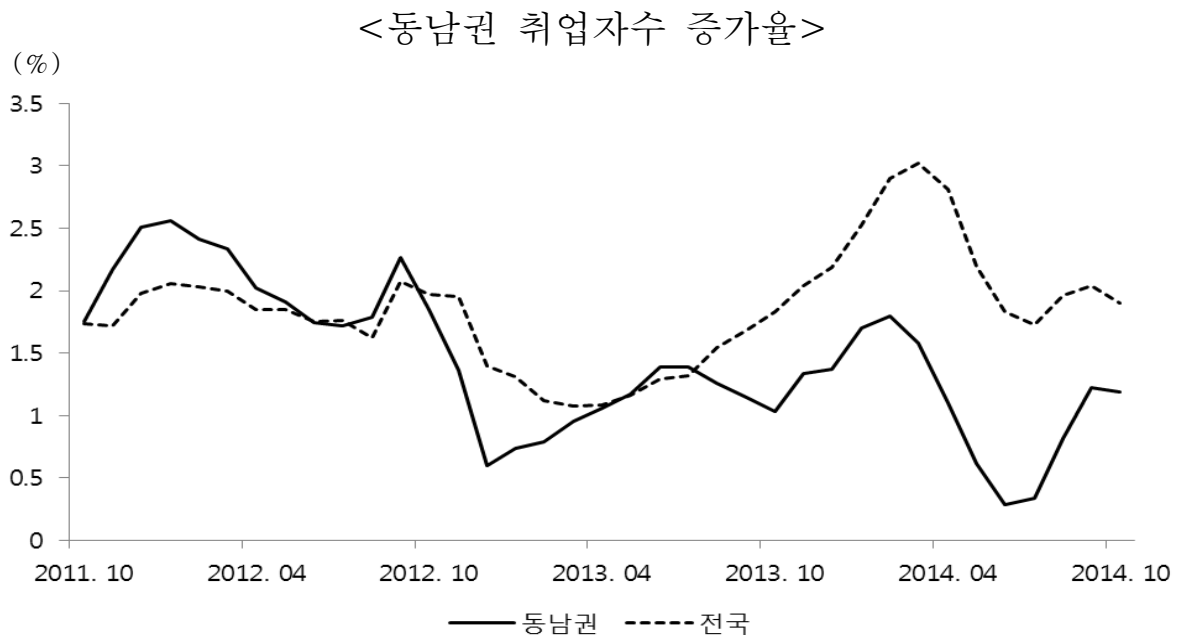


주: 전년동기대비 증가율, 3개월 이동평균

3. 고용 : 증가세 둔화

□ 동남권 취업자수는 증가율이 둔화

- 전국은 도소매·숙박·음식점업(4.9%), 제조업(4.3%) 및 건설업(3.0%)을 중심으로 증가
- 동남권은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2.1%), 제조업(1.7%),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(0.2%)의 경우 취업자수가 증가하였으나 건설업(-3.2%)은 감소
- 지역별로는 부산(3.0%), 경남(0.1%)은 증가했으나 울산(-1.0%)이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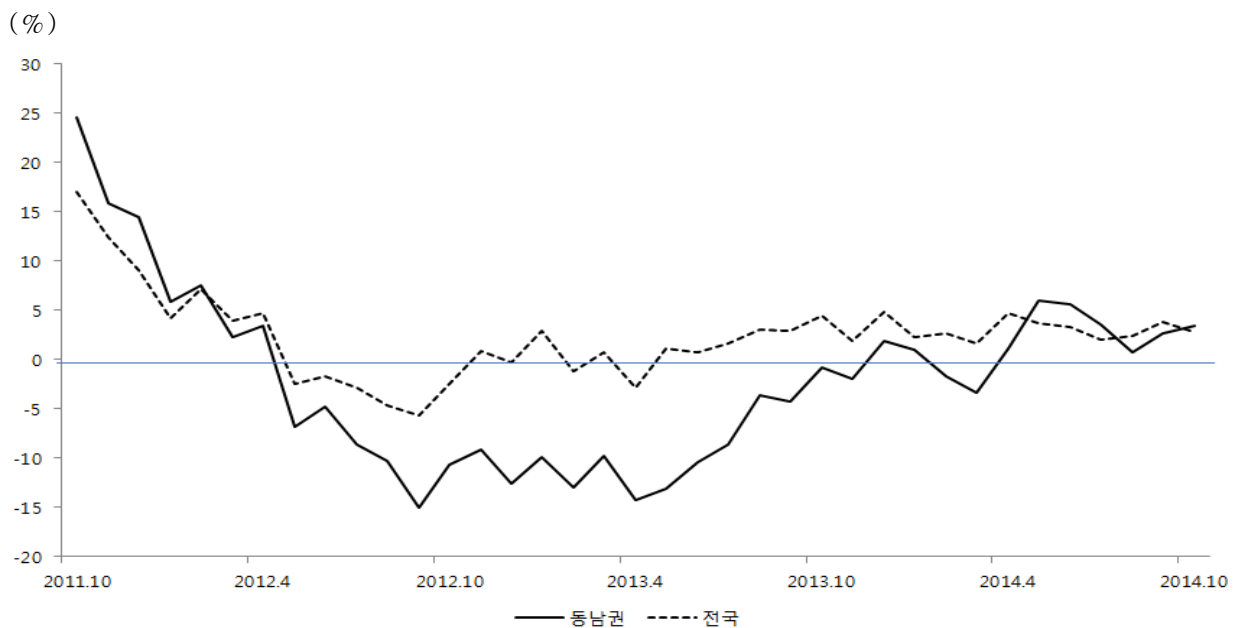
주: 전년동기대비 증가율, 3개월 이동평균

4. 수출 : 증가세 지속

□ 동남권 수출은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지속

- 전국은 자동차(-8.4%), 무선통신기기(-4.2%), 자동차 부품(-2.3%)이 감소했으나 선박(20.8%), 반도체(8.0%), 석유제품(1.0%) 등을 중심으로 증가
- 동남권은 자동차부품(-10.7%), 건설광산기계(-10.1%), 자동차(-7.3%)등이 부진했으나 선박(14.7%), 석유제품(5.2%) 등을 중심으로 증가
- 지역별로는 부산(18.7%)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울산(3.3%), 경남(2.8%)도 증가세 시현

<동남권 수출액 증가율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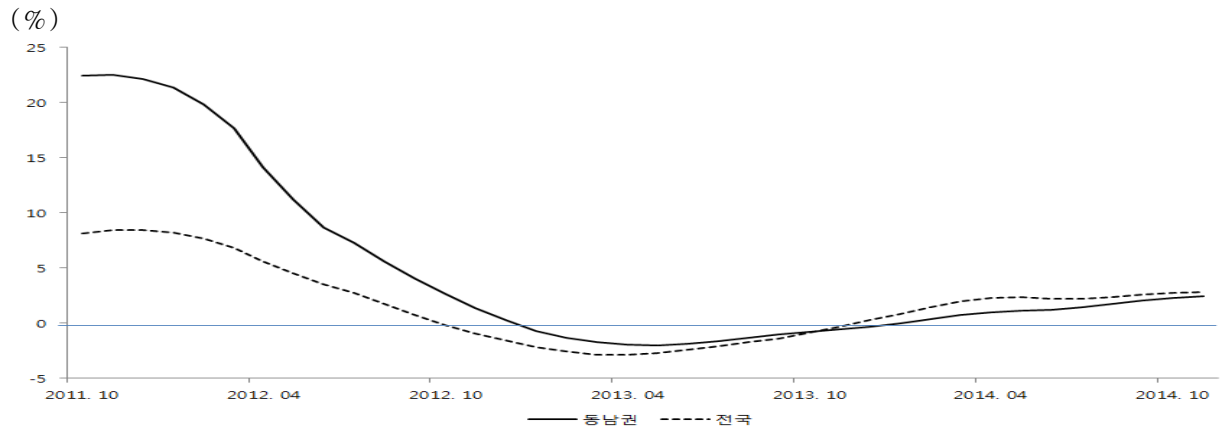


주: 전년동기대비 증가율, 3개월 이동평균

5. 부동산 : 상승세 지속

□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상승세 지속

<동남권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가율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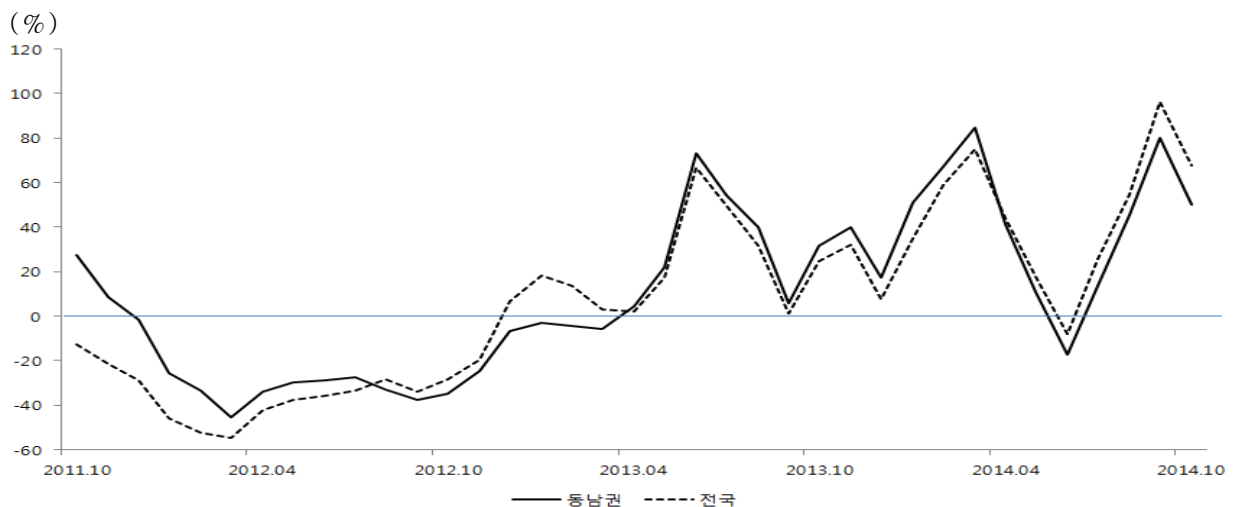


주: 전년동기대비 증가율, 3개월 이동평균

□ 동남권 아파트매매거래량은 10월 들어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세 유지

※ 동남권 아파트매매거래량 전년동월대비 증가율(%)
126.0(7월) → 84.6(8월) → 78.9(9월) → 39.7(10월)

<동남권 아파트매매거래량 증가율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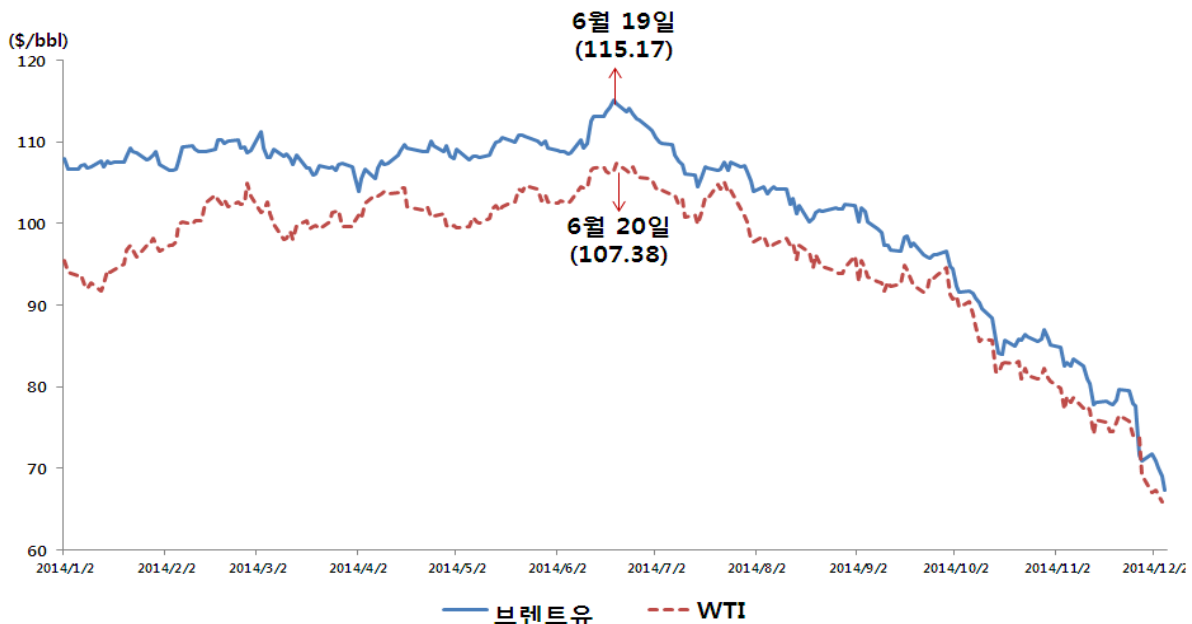
주: 전년동기대비 증가율, 3개월 이동평균

국제 원유가격 전망과 하락효과

원유가 변동 추이

- 지난 6월 하순 이후 원유가격이 40% 정도 급락
 - 12월 5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67.2달러로 금년 중 최고치 115.2달러(6.19)대비 41.7% 하락
- 최근 원유가격 하락 원인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
 -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확대
 - 사우디아라비아, 쿠웨이트, UAE를 중심으로 OPEC 생산 증대
 - 세계경제 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

<원유가격 추이>



자료: Bloomberg

원유가 전망

- 미국의 에너지정보청(EIA)에서는 11월 12일 원유가격 (브렌트유 기준)이 2014년 평균 101.04달러/배럴에서 2015년 83.42달러/배럴로 17.4% 하락 전망
- 골드만삭스에서는 지난 10월 원유가격이 브렌트유 기준으로 2015년 1분기 배럴당 85달러 이하로 하락 전망
 - 공급과잉이 현저하게 지속될 경우 2015년 2분기에는 8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
- 그러나 원유가격이 이미 70달러 이하로 하락하면서 원유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
 -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수지 균형가격(90달러), 미국 셰일 개발 손익분기점 중간값(60달러), 쿠웨이트 재정수지 균형가격(50달러) 등을 들어 이들 가격 이상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

(공급부족 전망)

- 에너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BlackRock, Investic 등은 수년 내 다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
 - 석유탐사 성공확률 저하, 지정학적 위험 지속, 석유탐사에 대한 투자 저조 등을 근거로 제시
 - 최근의 생산증가는 이라크 및 미국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상황이나 생산비 등을 감안할 때 지속여부 난망
 - 그 밖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, 2015년 나이지리아 선거, 베네수엘라의 소요 등도 공급 감소요인으로 작용 가능

- Accenture는 원유매장량만 보면 중기적으로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가가 하락하면 수익성 문제로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

(수요부족 전망)

- 컨설팅사인 Earnst & Young에서는 중기적으로 여전히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
 - 특히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수요급증을 예상하기 어려움

원유가 하락 효과

- IMF(10월) 추정에 따르면 원유가격이 금년보다 20% 하락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은 내년 중 1.5%포인트 상승 예상
 - 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실질소득 상승, 소비자심리 호전 등에 기인
 - Financial Times(11.20)에 따르면 원유가격이 20% 하락하면 미국에서만 연간 800억 달러(미국 소비의 0.7%)의 가계소득 증대효과 발생
- 세계적인 에너지시장 분석기관인 Pira Energy에서는 원유가격이 10달러 하락할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은 0.13~0.18%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
- 특히 유가 보조금으로 연료가격을 글로벌시장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는 중국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유가 보조금으로 인해 축소된 보건·교육·인프라 재원 마련으로 경제성장 촉진

□ 반면 석유수출국들은 단기적으로 수입감소로 인한 재정압박
리스크 증대

– 원유가격이 30달러 하락하면 석유수출국들은 연간
4,000억 달러 수입 감소

□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등 일부 산유국의 재정압박, 미국 셰일
오일 생산업체의 채무부담 증대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
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

– 미국 주요 셰일오일 탐사업체의 평균부채규모는 2005년
9.8억달러에서 2013년 24.6억 달러로 확대